

# 금융+ICT 융합할 인재 어디에 인터넷은행 '수장찾기' 물색전



**캐뱅크** 심성훈·옥성환 등 후보군에  
**카뱅크** 윤호영과 공동대표 찾는 중  
**토스** 본인가 때까지 현 체제 유지

인터넷전문은행들이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할 수 있는 수장 찾기에 나섰다.

케이뱅크가 차기 행장 선임을 위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시했으며, 카카오뱅크 역시 이용우 전 공동대표 후임으로 후보군을 물색 중이다. 정기주주총회가 3월 말임을 감안하면 카카오뱅크도 다음주 중으로는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예비인가를 받은 토스뱅크(가칭)는 준비법인을 이끈 수장으로 삼성전자를 거쳐 토스의 송금서비스를 선보인 홍민택 대표를 낙점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이날 오후 차기 행장을 선출하기 위한 임추위 첫 회의를 열고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 향후 몇 차례 추가 회의를 거쳐 3월 중순께 최종 후보자를 내놓을 전망이다.

기존 심성훈 행장은 지난해 9월로 2년의 임기를 다 채웠지만 자본확충 등을 이유로 3월 말 정기주총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된 상태다.

일단 심 행장을 비롯해 옥성환 경영기획본부장과 안효조 사업총괄본부장, 김도완 ICT총괄본부장 등은 차기 행장 상시 후보군이다.

여기에 최대주주인 KT 관련 인물들이 차기 행장감으로 거론되고 있다. KT의 금융 계열사인 비씨카드 이문환 전 대표와 케이뱅크 출범을 이끌었던 KT 김인회 전 사장 등이다.

변수는 국회다. 계류 중인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최대주주로서 KT의 의견에 힘이 실릴 수 있다.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완화한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케이뱅크에 대한 KT의 대주주 적격 심사도 재개될 수 있다. 일단 다음달 4일 법제사법위원회, 5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코로나19로 두 차례나 연기된 만큼 향후 일정도 달라질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윤호영 대표와 함께 은행을 이끌 공동대표 후보자를 찾는

중이다. 한국투자증권 출신인 이용우 전 대표가 지난달 31일자로 사임하면서 현재는 윤 대표 단독 체제다. 차기 공동대표로는 한국투자금융과 계열사 현직 임원을 비롯해 외부 인물들도 후보군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토스는 지난달 말에 인터넷은행 본인가를 위해 토스혁신준비법인을 출범 시켰다.

준비법인의 수장은 기존 토스에서 프로덕트 오너(Product Owner)였던 홍민택 대표다. 홍 대표는 IBM과 삼성전자 등 국내외 IT기업을 거쳐 지난 2017년에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에 입사했다. 비바리퍼블리카에서 송금과 결제, बैं킹 등 다양한 서비스를 담당했다. 본인가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홍 대표 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토스 관계자는 "홍 대표는 비바리퍼블리카에 입사한 이후 여러 주요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다"며 "특히 인터넷은행 본인가를 잘 준비해야 하는 준비법인 대표로서 비바리퍼블리카의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잘 정착시키고, 여러 주주사들과 다양한 사안을 잘 조율해 진척 시킬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 하나銀 '서울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출시

하나은행이 26일 서울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함께 청년 주거안정 금융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을 출시했다.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서 용자추천을 받은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며, 대상 주택은 임차보증금 3억원(월세 70만원)이하의 서울시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 최대 7000만원까지이며, 대출기간은 임대차계약 기간 내 6개월 이상 2년 이내로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다. 임대차 연장 시 최장 8년까지 대출연장 할 수 있다.

하나은행이 단독 취급하는 이번 상



품은 서울특별시에서 이자를 최대 연 2.0% 지원해 최저 연 1.0%(출시일 기준) 금리로 대출 이용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대출한도 7000만원 가정 시 연간 최대 140만원의 이자가 절감된다.

특히 영업점 방문없이 '하나원큐' 모바일 앱을 통해 보증한도 조회 및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나유리 기자

## 캐롯손보, 디지털 보험 특허권 등 획득

캐롯손해보험은 지난 1월 출범 이후 출시한 신규 디지털 기반 보험과 관련해 특허권과 배타적 사용권을 연이어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캐롯손보는 국내 최초 운전한 만큼만 매월 보험료를 납입하는 퍼마일 자동차보험 프로세스 관련해 최근 특허청의 BM(Business Model) 특허를 받았다.

퍼마일 자동차보험으로 특허를 받은 발명 명칭은 '자동차 트립 정보에 기초한 보험료 자동 산출 시스템'으로 캐롯 플래그를 이용한 자동 주행거리 확인, 보험료 정산 과정의 프로세스에 대한 독창성을 인정받았다.

또 손해보험협회로부터는 쿠폰형·크레딧형 보험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녹아든 스마트ON보험으로 배타적 사



용권 2종을 획득했다.

횡수에 상관없이 1년간 여행일 만큼만 납부하는 '스마트ON 해외여행보험'의 단기율에 배타적 사용권 3개월, 산책 갈 때마다 1회당 보험료를 정산하는 '스마트ON 펍산책보험' 위험 담보 3종에 대해 배타적 사용권 6개월을 받았다.

/김희주 기자 hj89@

## 기업은행 신임 전무이사에 김성태 내정

금융위, 내일쯤 공식발표 예정

IBK기업은행의 '2인자' 자리인 신임 전무이사(수석부행장)에 김성태 IBK캐피탈 대표(사진)가 내정됐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성태 IBK캐피탈 대표가 기업은행 전무에 낙점됐다. 앞서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김성태 IBK캐피탈 대표와 최현숙 전 여신운영그룹장(부행장)을 복수 추천하자, 금융위원회가 김성태 IBK캐피탈 대표를 낙점한 것. 기업은행 전무는 행장이 추천 및 제청하고 금융위원장이 임명한다. 금융위는 오는 28일쯤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김성태 IBK캐피탈 대표는 1962년 생으로 대전상고와 충남대를 졸업하고 1989년 기업은행에 입행했다. 이후 부산·울산지역본부장, 경동지역본부장, 소비자보호그룹장 등을 역임했으며



난해 2월 21일 IBK캐피탈 대표로 취임하기 전까지 기업은행의 경영전략 그룹장을 맡았다. 김 대표는 윤용로 전 행장 시절 비서실장을 지내며 외부 출신 행장과 호흡을 맞춰본 경험이 이번 인사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가 기업은행 전무로 자리를 옮기면 IBK캐피탈 대표 자리에는 경합을 벌였던 최 전 부행장이 내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 행장이 능력 있는 여성을 중용하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밝힌 만큼 최 전 부행장이 윤 행장의 인사 철학에 부합하다는 판단에서다. 최 전 부행장은 지난 20일 관례에 따라 3년

(2년+1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한편 청와대는 윤 행장이 복수 추천한 김 대표와 최 전 부행장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한 결과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검증 과정에는 기업은행 노조가 지지하는 시석중 IBK자산운용 대표도 포함해 검증이 이뤄졌다.

기업은행은 지난 20일 윤 행장 취임 이후 첫 정기인사에서 최성재 글로벌사업부장을 글로벌·자금시장그룹장, 김영주 경기남부지역본부장을 여신운영그룹장, 윤완식 경서지역본부장을 IT그룹장, 임찬희 강남지역본부장을 개인고객그룹장에 각각 선임했다. 현재 임기를 마쳤지만 자회사를 이끌고 있는 김영규 IBK투자증권 대표, 장주성 IBK연금보험 대표, 서형근 IBK시스템 대표의 후임 인사는 28일 발표될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 "카톡 플친서 '신한미래설계포유' 만나요"

신한은행, 연금·재테크 콘텐츠 제공

신한은행은 연금·재테크·부동산·라이프 등 콘텐츠를 제공하는 '신한미래설계포유'의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채널을 오픈한다고 26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은퇴 브랜드 '신한미래설계'를 런칭하고, 은퇴 고객을 대상으로 쉽고 편하게 금융서비스와 다양한

정보들을 찾아볼 수 있는 신한미래설계포유를 신한 솔(SOL)과 모바일앱에서 운영하고 있다. 새롭게 선보이는 신한미래설계포유 플러스친구 채널을 통해 다양한 은퇴 정보와 일상 생활에 필요한 라이프 콘텐츠를 제공하며 고객과 소통할 계획이다.

플러스친구 채널에서는 ▲앱 설치 없이 빠르게 할 수 있는 '은퇴설계' ▲



각 기관별 연금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내 모든 연금' 등의 메뉴를 이용할 수 있다.

/안상미 기자

## "코로나 확산에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

» 1면 '코로나 비상 속 한은...서 계속'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심리가 얼어붙고 기업 체감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은이 앞선 사례처럼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24일 해외 출장 일정을 당초 예상보다 하루 앞당겨 귀국해 '코로나19 관련 긴급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이 총재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수 급증과 위기경보의 '심각' 단계 격상에 따른 국내 금융·외환시장의 움직임을 점검하고, 한은 업무지속계획의 세부실행방안을 차질없이 시행해 나갈 것을 지시했다.

추경 편성을 추진하는 정부와의 '정책공조' 차원에서라도 한은이 이달 금리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특단의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라고 밝힌 데 이어 24일 정부의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요구하면서 "비상한 경제시국으로 특단의 처방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훈 KB증권 연구원은 "당초 한은이 2월 금통위에서는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24일 이후 확진자

가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높아졌다"며 "이번 금리인하 이후에도 0.75%까지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이 해결책은 아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도 지난해 가계빚은 사상 처음으로 1600조원을 돌파했다. 자칫 금리를 낮출 경우 가계빚 증가세를 키울 수 있는 상황이다. 금리인하가 효과적인 경기부양책이 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일각에서 한은이 감염병 확산 추이를 지켜본 뒤 이르면 4월, 늦으면 하반기 중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 금통위 회의에는 금리인하 소수 의견이 더 늘어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지난 금통위에서는 조동철·신인석 위원이 금리인하 소수의견을 냈다.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한은의 금리인하 기대가 강화됐지만 과거 감염병 사례를 고려하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을 평가하기 이르다"며 "그만큼 한은이 금리인하를 선택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